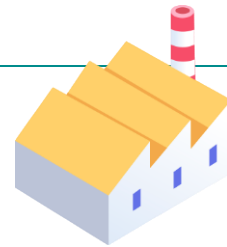


서히가 있었다면

유틸리티 Weekly | 2026.09.18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1% 하회했다. 16일 종가 기준 WTI 103.6달러/배럴(WoW +2.8%), 미국 천연가스 2.9달러/mmbtu(+2.8%), 아시아 LNG 현물 27.2달러/mmbtu(+10.3%), 호주산 유연탄 144.8달러/톤(-1.8%), 원/달러 환율 1,377.3원(+2.8%)을 기록했다. JKM이 20달러 후반대로 상승했다. 겨울철 국내 가스 가격 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 대미 투자 2호 안건으로 언급되는 대형 원전 8기 프로젝트에서 APR1400 2기 확보를 추진 중인 상황은 긍정적이지만 낙관적인 결과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적자에 대응하는 수익, 일자리, 공급망 등이다. 만약 한국형 원전으로 2기가 확정되더라도 이후 후속 프로젝트까지 수주가 이어질 가시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시장 눈높이가 2기를 넘어 8기 또는 이상을 바라본다면 기대감을 일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 수출이 성사된다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시공 리스크 책임 배분, 수익성 또는 PPA 보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리스크만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SMP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LNG 연료비단가는 9월 수치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전월대비 9% 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kW당 170원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별 SMP는 9월 초 평일 기준 160원/kWh를 상회한 이후 100원/kWh 초반으로 하락했다. LNG 연료비단가보다 월별 SMP가 낮게 형성되는 편이지만 이번 9월은 격차가 유의미하게 큰 상황이다. 기온이 하락하며 전력수요 비수기에 진입한 가운데 공급능력은 100GW 내외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정비 일정 변화 등 큰 요인이 없다면 9월 평균 SMP는 kWh당 120~130원대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 한편 7~9월은 태양광 기여도가 높지만 점차 겨울철에 진입하면서 실효용량이 감소하고 전력 기반 난방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9월 나타난 비용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된 전기요금 선납은 없었던 일이 되는 모습이다. 사채발행한도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자금조달 통로였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한전채 발행은 영업실적 감소폭에 비례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12차 전기본에서 파생되는 송변전 계획의 투자규모가 11차 계획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 조달 규모도 늘어날 것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전력의 투자비를 확보할 방법은 없다.
- 언론에 따르면 LNG 용량시장이 1.3GW 규모로 개설될 전망이다. 12차 전기본 발표를 앞둔 현재 구체적인 개설 일정은 미확정인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시설 확보, 첨단산업 관련 산업단지 수요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모잠비크 Rovuma LNG 프로젝트의 FID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Area 4 보유 지분은 10%이며 모잠비크 Coral North FLNG에 이어 Rovuma LNG까지 가동될 경우 지분 물량이 현재 106만톤 가량에서 2031년 388만톤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2027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개설하는 발전원별 계약시장 경쟁입찰에 선정되어야 한다. 상한가격이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대가 민간 수요 기반 PPA보다 낮다면 발전사업자의 수요는 민간 시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6) 가격은 17일 종가 기준 30,550원으로 전주대비 0.3% 상승, YTD 193.8%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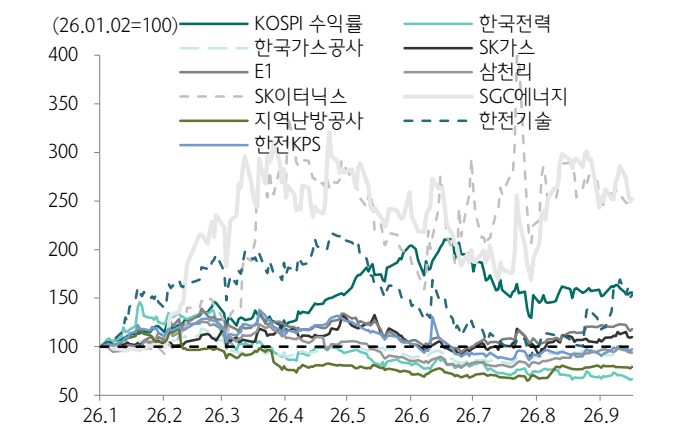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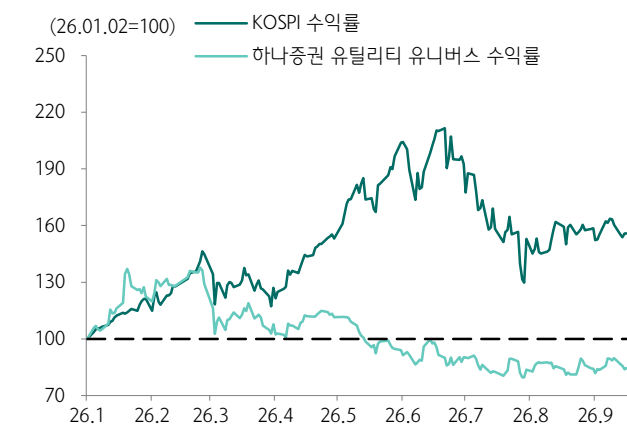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3분기 실적은 9월 SMP 감안하면 시장 눈높이 상회 가능성. 4분기부터는 비용 증가 영향 본격화
- SK가스: 옵셔널리티 시행 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PG 단가는 LNG 대비 경쟁력 충분할 것으로 추정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9/17)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	6,715.41	(4.5)	2.1	(2.8)	(2.0)	(15,460)	(114,943)	49,363
한국전력	31,000	(5.3)	(4.5)	(8.7)	(2.5)	(421)	(191)	622
한국가스공사	36,400	(0.3)	(3.4)	(1.4)	0.1	(51)	90	(40)
SK가스	240,500	(4.6)	2.8	4.3	4.8	36	(22)	(14)
E1	95,600	(3.5)	(2.8)	(1.7)	2.6	(4)	16	(12)
삼천리	131,900	(4.4)	(3.4)	0.8	1.2	5	(7)	6
SK이터닉스	48,950	(5.5)	(1.5)	(12.3)	(12.6)	(58)	(61)	115
SGC에너지	54,000	(8.3)	1.1	(13.7)	(13.6)	2	15	(13)
지역난방공사	75,000	0.3	(2.0)	0.5	2.9	(2)	1	1
한전기술	137,600	(5.1)	28.1	8.9	46.1	(139)	(531)	666
한전KPS	47,600	(2.7)	5.1	1.5	5.9	34	(38)	3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주요 뉴스

1. 대미 투자 변수 '웨스팅하우스 인수'...지재권 해결과 손실 위험의 두 얼굴 - <https://bulky.kr/AF33uLJ>

-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협상 진행 중. 이번주 내로 최종 타결 시도
- 투자 대상 사업으로 LNG 발전소와 원전 건설 거론. 한미 양국이 미국 내 최대 8기의 대형 원전 건설 방안 논의 관측
-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노형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갈등이 있는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거론

2. 5社 석탄 한손에 쏠리는데...5600만t 바이어의 복잡한 셈법 - <https://bulky.kr/4Qq3XQK>

- 발전 5사 통합으로 연간 5,600만t 규모의 석탄을 한 곳으로 통합 구매 가능. 가격협상력 및 조달 효율 증가 기대
- 다만 과거 발전 5사의 구매실적에 따르면 계약 물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관계 나타나지 않음
- 현재는 각 사가 시황을 전망해 재고 수준 및 구매 시점 결정. 통합 이후 5개의 시장관이 하나로 되며 오판 영향 커질 수 있음

3. LNG 용량시장 드디어 열리나...1.3GW 유력 - <https://bulky.kr/9BYW1S7>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NG 용량시장 개설을 위한 논의 중. 1.3GW 규모로 시장을 여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
- 10월 용량시장 관련 공청회 개최 검토 중. 공청회 개최 시 입찰물량과 입찰평가방식 등 기본 틀이 보다 구체화될 것
- 1.3GW 우선 입찰 뒤 추가 물량 12차 전기본에서 구성 혹은 전기본 수립 이후 전체 물량 재조정에 따라 시장 개설 시점 결정

4. 한전 '전기료 25조 선납' 무산...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거절 - <https://bully.kr/DIMDWfN>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이 지난 7월 제안한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내부 검토한 뒤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 반도체 업황 및 중장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 수년치 전기요금 선납은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한전에 거절 의사 전달
- 선납안 무산으로 한전의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 방안 재부각. 한전은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 조달 부담

5. 호주, LNG 수출업체 내수공급 의무 완화...‘최대 20%’ - <https://bully.kr/ET1FRvq>

- 호주 정부가 LNG 수출기업에 생산량 20%를 국내에 공급하는 기존 계획 완화. AER이 각 수출기업의 내수 공급 의무량 결정.
-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진 동부 가스시장을 대상으로 예상 수요의 110% 수준을 공급해 안정적인 과잉 공급 상태 확보 목적
- 연간 최대 200PJ의 가스를 추가로 국내 시장에 공급 가능할 전망. 제도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 1일로 당초보다 6개월 지연

6. 상하이전기, 말레이시아 사라왁 CCGT 프로젝트 3호기 가스터빈 수주 - <https://bully.kr/1x712S>

- 상하이전기가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CCGT 프로젝트 3호기에 대한 장비 공급 및 EPC 턴키와 25년 LTSA를 체결
- 이번 프로젝트는 상하이전기의 중장비 가스터빈 포트폴리오가 실제 상업 프로젝트에서 채택된 첫 해외 사례
- 자체 제조한 가스터빈부터 증기터빈, 발전기 등을 포함한 종단 간 솔루션 및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약속이 의미가 큼

7. Rovuma LNG, 해저 생산정 18개 개발 선행 작업 착수 - <https://bully.kr/6tefGsE>

- 모잠비크 대규모 가스전 개발사업인 로부마 LNG(Rovuma LNG)가 해저 생산정 개발 위한 선행 작업 착수하며 사업 추진 중
- 사이펴와 안데놀은 엑스모빌 모잠비크와 모잠비크 로부마 LNG 1단계 해상 개발을 위한 선행 작업 의향서 체결
- 이번 의향서의 초기 계약 규모는 약 1,100만유로(약 1,300만달러). 사업 구체화 및 실행계획 수립 위한 초기 작업 성격

8. 선선한 날씨에 전력수요·SMP 급하락...글로벌 시장은 ‘리스크’ - <https://bully.kr/6tefGsP>

- 1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육지 기준 SMP 가중평균은 9일 110.16원/kWh로 하락. 8일 141.10원에서 하루 만에 21.9% 급락
- 초가을 날씨로 냉방수요 급감 영향. 최대전력이 4GW 이상 감소했으나 높은 발전기 공급 여력에 SMP 하락한 것으로 분석
-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하는 상황. 이번 SMP 하락을 추세적인 가격 안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9. 8월 LNG 수입 31.6% 감소...물량 줄어도 단가 부담은 여전 - <https://bully.kr/2qbEi7Z>

- 올해 8월 국내 LNG 수입량이 전년 동월보다 31.6% 감소했지만 수입금액 감소율은 12.3%. 물량 감소에도 단가 부담 지속
- 톤당 평균 수입금액은 8월 약 743.2달러로 7월 대비 0.6% 감소. 수입 지출 감소는 평균 단가 하락보다 도입물량 축소 영향
- 국가별로는 호주가 85만 1904.1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7.0% 차지하며 1위 유지. 미국은 67만 9,951톤 21.6%로 2위

10. 15년 만에 RPS 폐지...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 전환 - <https://bully.kr/9BYW1Uj>

-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폐지. 2027년부터 정부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
-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
-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및 구매단가 하락 영향 기대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9월 16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377.3	1,340.0	1,416.6	1,527.6	1,378.8	1,440.6	2.8	(2.8)	(9.8)	(0.1)	(4.4)
달러 인덱스	Pt	100.3	98.7	99.7	100.4	96.7	98.3	1.6	0.6	(0.1)	3.8	2.0
WTI	달러/배럴	103.6	97.3	84.0	80.7	64.9	57.3	6.5	23.4	28.5	59.7	81.0
Brent	달러/배럴	105.8	101.3	88.6	79.7	68.5	60.9	4.5	19.5	32.8	54.5	73.9
Dubai	달러/배럴	120.7	115.0	86.9	73.7	71.6	60.9	4.9	38.9	63.8	68.6	98.2
Bunker	달러/톤	744.7	662.9	608.1	464.9	396.2	341.8	12.3	22.5	60.2	87.9	117.8
천연가스(HH)	달러/MMBtu	2.9	2.8	2.7	3.2	3.1	3.7	2.8	6.3	(8.5)	(7.4)	(21.7)
아시아 LNG	달러/MMBtu	27.2	24.7	21.4	15.8	11.5	9.6	10.3	27.2	72.1	137.8	183.6
유연탄(호주)	달러/톤	144.8	147.4	129.3	143.8	101.8	107.5	(1.8)	12.0	0.7	42.3	34.7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판매실적 추이

한국전력

		2026년 7월	2025년 7월	YoY(%)	2026년 7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7,907	8,304	(4.8)	6,617	19.5	48,489	48,402	0.2
	일반용	12,597	12,714	(0.9)	11,130	13.2	80,793	79,305	1.9
	산업용	24,207	24,682	(1.9)	22,675	6.8	160,368	163,934	(2.2)
	기타	3,008	3,124	(3.7)	2,847	5.7	24,740	25,543	(3.1)
	합계	47,719	48,824	(2.3)	43,269	10.3	314,390	317,184	(0.9)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12,555	13,508	(7.1)	10,311	21.8	76,143	75,867	0.4
	일반용	23,369	23,790	(1.8)	19,436	20.2	138,994	136,945	1.5
	산업용	46,317	47,916	(3.3)	42,790	8.2	290,064	297,502	(2.5)
	기타	3,502	3,616	(3.2)	3,262	7.3	27,590	28,126	(1.9)
	합계	85,742	88,830	(3.5)	75,799	13.1	532,792	538,440	(1.0)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58.8	162.7	(2.4)	155.8	1.9	157.0	156.7	0.2
	일반용	185.5	187.1	(0.9)	174.6	6.2	172.0	172.7	(0.4)
	산업용	191.3	194.1	(1.4)	188.7	1.4	180.9	181.5	(0.3)
	기타	116.4	115.8	0.6	114.6	1.6	111.5	110.1	1.3
	평균	179.7	181.9	(1.2)	175.2	2.6	169.5	169.8	(0.2)

한국가스공사

		2026년 8월	2025년 8월	YoY(%)	2026년 7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949	891	6.5	1,020	(7.0)	12,844	12,728	0.9
	발전	1,167	1,395	(16.3)	1,210	(3.6)	10,960	10,707	2.4
	합계	2,116	2,286	(7.4)	2,230	(5.1)	23,804	23,435	1.6

지역난방공사

		2026년 7월	2025년 7월	YoY(%)	2026년 6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천Gcal, GWh)	열	543	534	1.7	494	9.9	9,433	9,746	(3.2)
	냉수	45	46	(2.2)	36	25.0	163	150	8.6
	전기	921	1,211	(23.9)	752	22.5	8,836	8,910	(0.8)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9월 10일(목)	9월 11일(금)	9월 12일(토)	9월 13일(일)	9월 14일(월)	9월 15일(화)	9월 16일(수)
SMP(원/kWh)	최대	166.64	176.60	112.04	121.38	128.40	114.02	161.59
	최소	96.25	95.96	95.87	93.50	94.91	90.43	90.09
	가중평균	116.28	126.99	104.02	104.89	109.74	101.70	104.45
수요예측(MW)	최대	72,897	71,983	60,929	61,193	72,200	70,353	71,422
	최소	53,137	52,411	46,678	43,127	47,594	52,159	52,338
	가중평균	61,587	62,028	53,125	50,797	59,259	59,470	60,796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최소전력(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시간대	금년	시간대		
9월 10일(목)	161.0	100.5	73.9	81.2	(9.0)	19시	56.0	04시	26.6	36.0
9월 11일(금)	161.0	98.1	73.1	80.3	(8.9)	19시	55.7	04시	25.0	34.3
9월 12일(토)	161.0	93.8	66.1	70.1	(5.8)	20시	50.3	13시	27.7	41.9
9월 13일(일)	161.0	95.7	66.1	69.7	(5.2)	20시	47.5	11시	29.6	44.8
9월 14일(월)	161.0	99.6	75.7	82.3	(8.0)	19시	51.2	04시	23.9	31.6
9월 15일(화)	161.0	100.6	75.6	84.0	(10.0)	19시	56.3	04시	25.0	33.0
9월 16일(수)	161.1	102.1	75.7	84.4	(10.3)	19시	56.1	04시	26.4	34.9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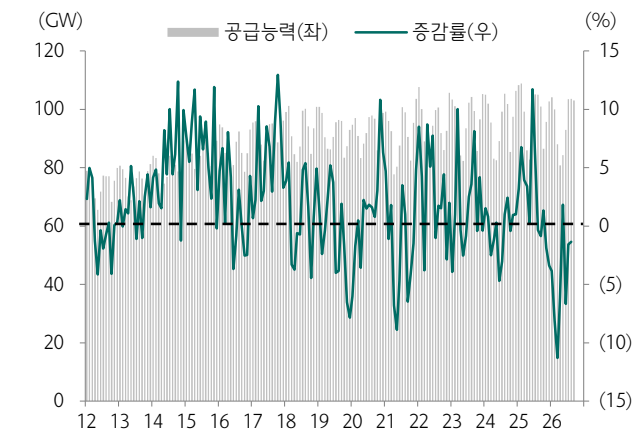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9월 3주차)

석탄	당진	#6 : 8.31 - 12.21
	보령	
	신보령	
	삼천포	
	여수	
	영흥	#2 : 1.1 - 9.21 / #5 : 8.25 - 12.16
	태안	#6 : 9.10 - 9.20 / #10 : 9.11 - 9.16
	신서천	
	하동	
	삼척	
	북평	
	고성	
	강릉안인	
국내탄	삼척화력	#2 : #2 : 9.8 - 9.12 / 9.14 - 9.19
	동해	#1 : 8.25 - 11.16 / #2 : 8.25 - 11.14
원자력	고리	#3 : '24.9.28 - '26.12.31 / #4 : '25.8.6 - '26.12.31
	신고리	
	한빛	#1 : '25.12.9 - '27.4.12 / #2 : '26.9.11 - '27.7.9
	한울	#4 : 8.22 - 9.15
	신한울	
	월성	#2 : '25.9.1 - '26.10.31 / #4 : '25.7.18 - '26.11.9
	신월성	
	새울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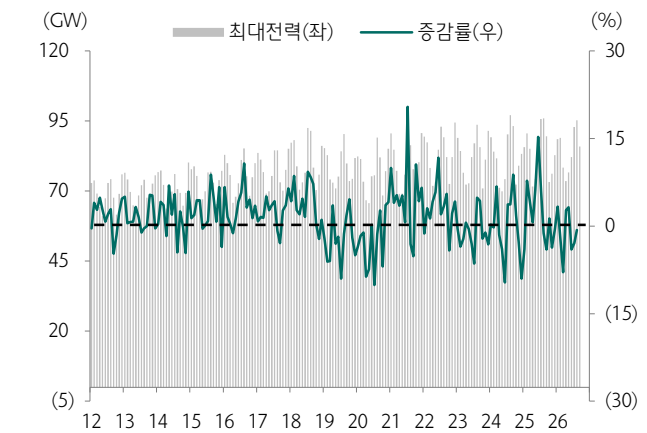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YoY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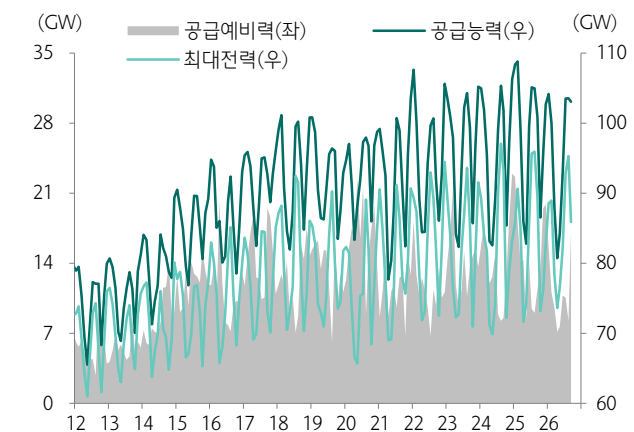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YoY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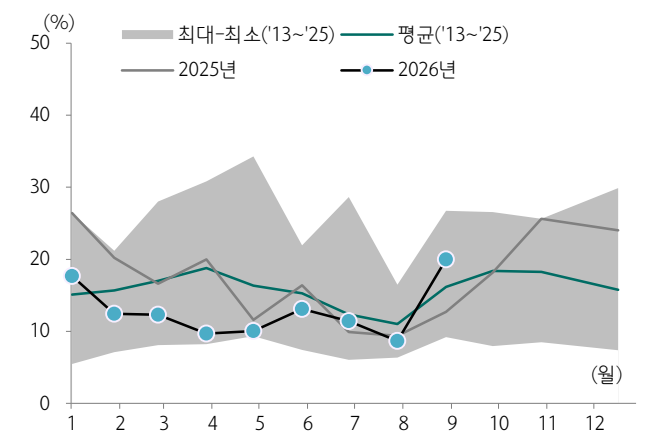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YoY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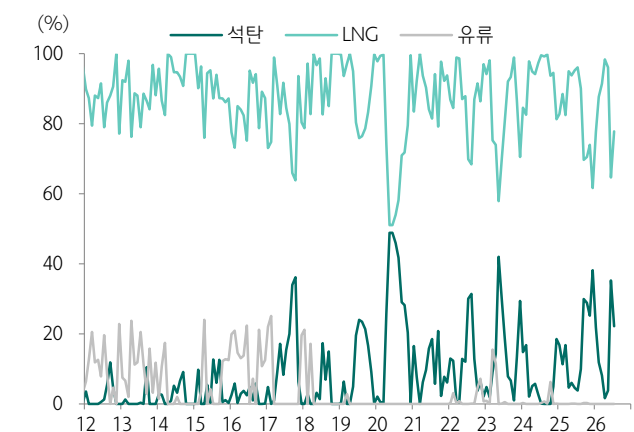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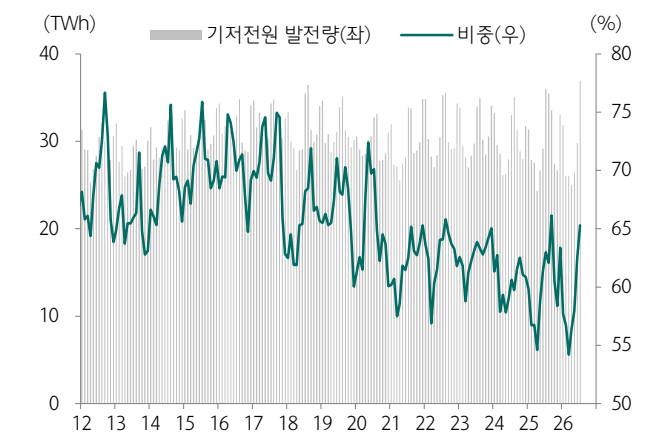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7월 기저전원비중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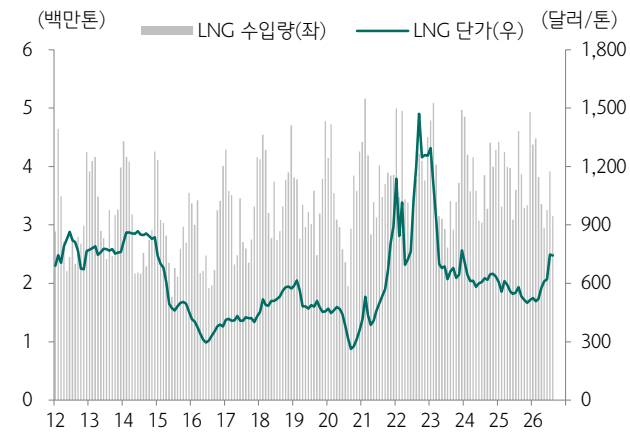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7월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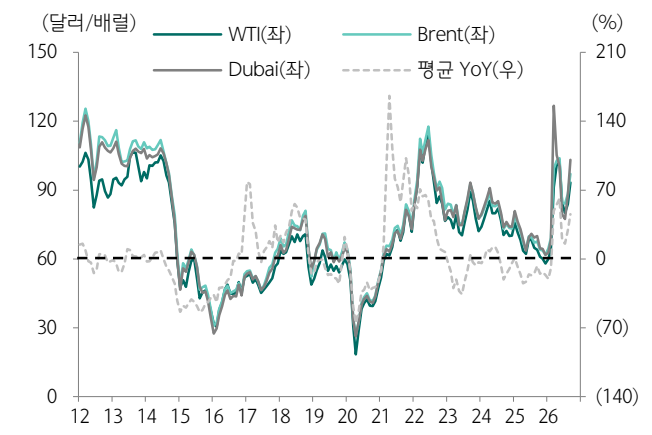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8월 YoY -31.6%/+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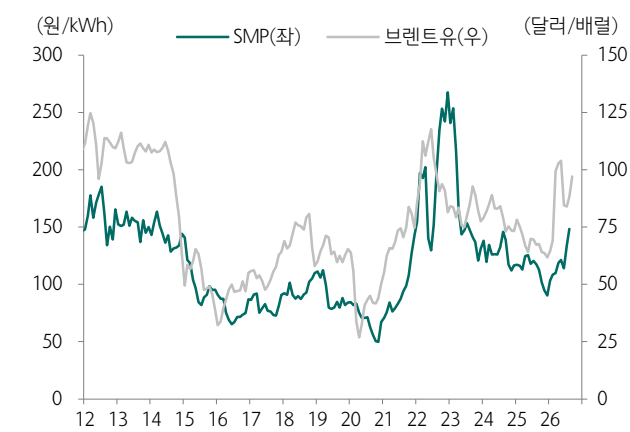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9월 3대 유종 평균 YoY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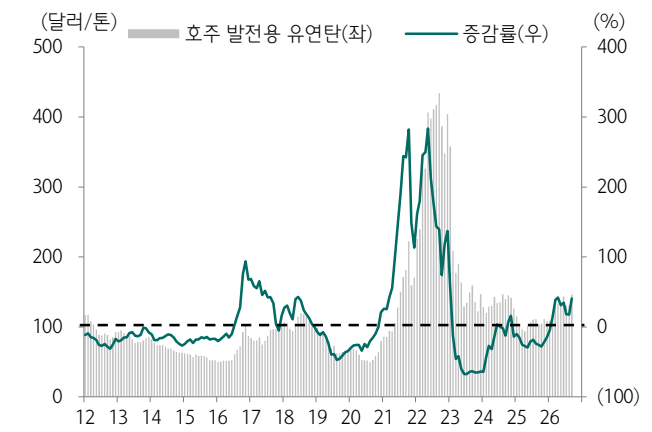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8월 SMP YoY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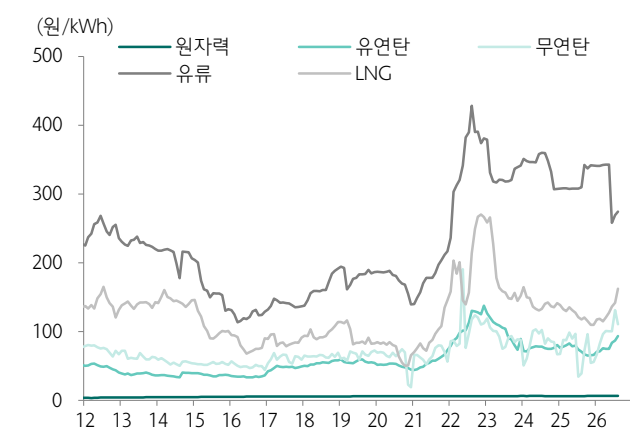
자료: EPSI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9월 YoY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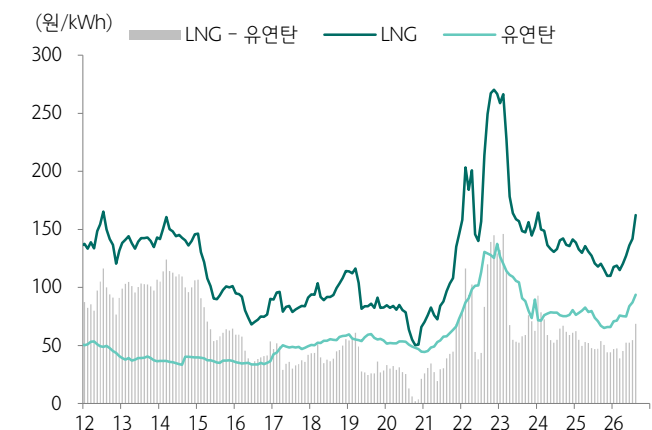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8월 LNG YoY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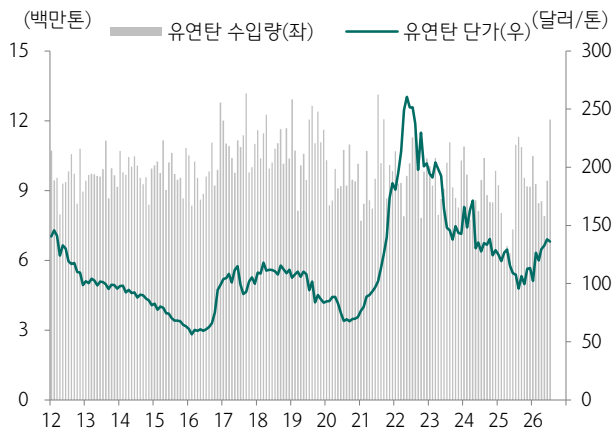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8월 68.65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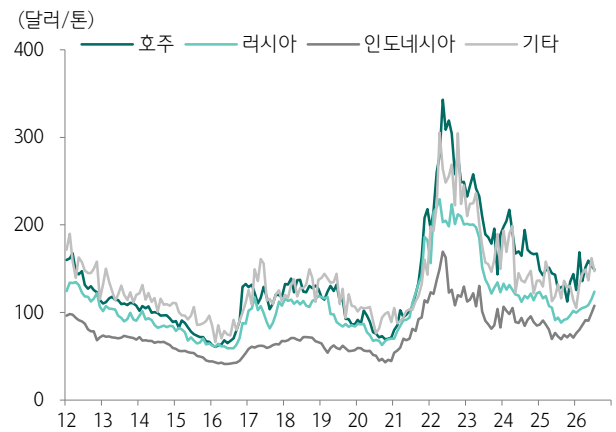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7월 YoY +9.9%/+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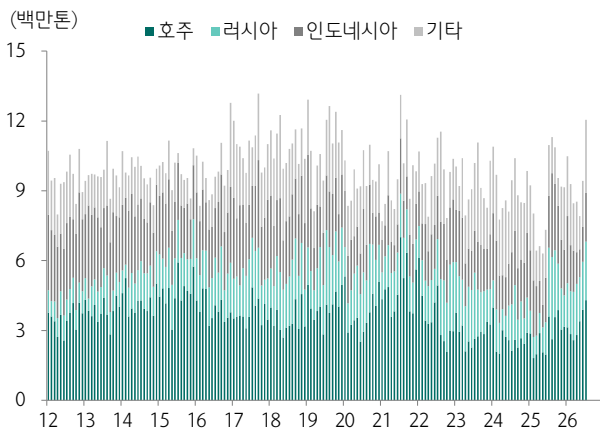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4. 지역별 유연탄 수입단가 (7월 호주 YoY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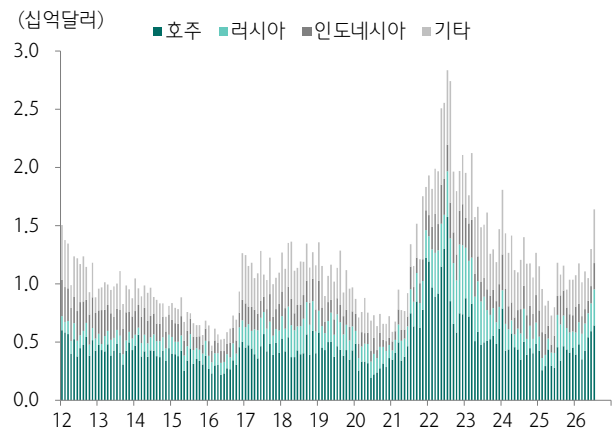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5. 지역별 유연탄 수입물량 (7월 호주 YoY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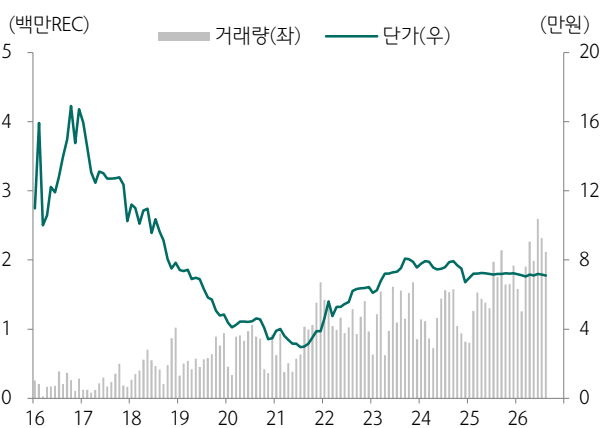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6. 지역별 유연탄 수입금액 (7월 호주 YoY +41.1%)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7. 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8월 YoY +21.1%/-1.3%)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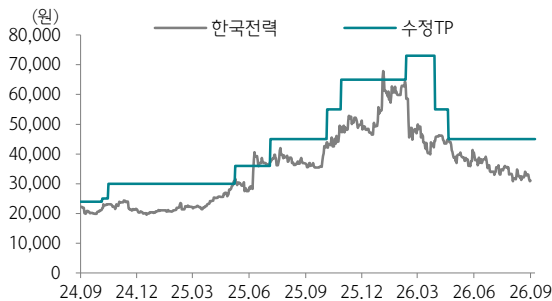
도표 18.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추이 (KAU26)



자료: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투자이전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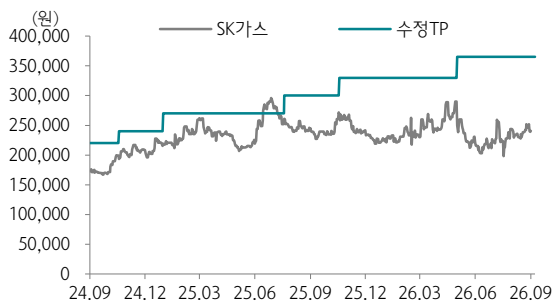
한국전력



날짜	투자이전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14	BUY	45,000		
26.5.7	Neutral	45,000	-14.64%	-2.11%
26.4.15	BUY	55,000	-17.38%	-15.73%
26.2.27	BUY	73,000	-37.81%	-30.27%
25.11.14	BUY	65,000	-16.11%	4.46%
25.10.22	BUY	55,000	-18.18%	-9.91%
25.7.22	BUY	45,000	-15.71%	-2.56%
25.5.26	BUY	36,000	-7.36%	12.78%
24.11.1	BUY	30,000	-24.37%	2.33%
24.10.22	BUY	25,000	-8.74%	-7.60%

투자이전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SK가스



날짜	투자이전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5.18	BUY	365,000		
25.11.4	BUY	330,000	-26.27%	-12.12%
25.8.5	BUY	300,000	-19.03%	-9.33%
25.1.16	BUY	270,000	-10.81%	9.63%
24.11.4	BUY	240,000	-13.07%	-5.21%
24.7.23	BUY	220,000	-20.44%	-9.2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이전 비율공시

- 투자이전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09월 18일